

음식·역사는 강점...편의시설 부족은 약점

목포시, 관광 실태 진단

근대개항 역사도시 이미지 강해 가장 가보고 싶은 곳 유달산·갯바위 외지 관광객 70% 목포만 방문 인근 시·군 연계 코스 개발 필요

외지 관광객의 눈에 비친 목포의 이미지로 '수산항구도시, 근대개항 역사도시'가 강했다. 또 목포를 찾는 이유로 '특산물이나 먹거리를 즐기면서 역사·문화 관광지를 둘러보기 위해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관광객 대다수는 자가용(74.1%)을 이용해 목포를 방문하고 20.1%만이 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에서는 10명 중 6명이 기차를 이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사실은 목포시가 최근 '목포시 관광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의뢰한 용역 결과, 관광객 500명과 지역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목포를 찾는 관광객 10명 중 8명은 1박 2일 동안 체류하고 70%는 목포만 방문한 반면 나머지 30%는 인근 시군을 방문했다. 가장 많이 찾는 인근 지역은 해남과 무안 순이었다.

이에따라 서남권 사군간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행 목적지로 목포를 선택한 이유는 '호기심(25.9%)', '지역 음식 체험



목포시를 찾는 관광객들은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유달산과 갯바위를 꼽았다. 인가에 휩싸인 유달산. <목포시 제공>

(22.7%)', '역사문화 관광자원이 많아서(20.3%)' 등 3가지가 주를 이뤘다.

가장 맛보고 싶은 음식으로는 세발낙지를 꼽았고 민어회와 홍어삼합이 그 뒤를 이었다.

목포 방문 때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유달산(노적봉, 조각공원)과 갯바위(충추는 바다분수, 국립해양유물 전시관)가 압도적이었다. 이들 관광객이 목포에서 쓰는 비용

은 11만3000원 선인 것으로 집계됐다.

목포시 관광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근대역사유적 관광도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남도예술 관광도시'와 '섬해안 해양경관도시'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역민들이 느끼는 '목포관광 현실'은 먹거리와 관광자원은 뛰어나지만 관광편의·살거리·숙박여건 등은 모두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도로·고속철도 등 접근성 용이, 다양한 유형의 관광자원 보유, 음식관광 및 야간 관광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강점으로 평가됐다.

이에 반해 목포관광 브랜드 이미지 미약, 집객력 있는 관광지 명소 제한, 관광숙박시설 동시 수용력 부족, 목포 관광매력의 소구 미흡 등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서 제주 4·3 진혼제...세계마당페스티벌 31일 개막

세계적인 순수민간예술 축제인 제18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유달 예술타운과 목포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도시의 꿈'이라는 슬로건으로 개·폐막놀이를 비롯해 라오스와 코트디부아르, 볼리비아, 중국, 아제르바이잔, 몽골 등 해외 7개국의 민속음악과 마임 등이 초청됐다.

국내공연으로는 건물벽면과 크레인을 이용해 공중으로 날아올라 한편의 환상동화를 펼칠 창작중심 단단의 공중퍼포먼스 '단디우화'가 공연된다. 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와 그들을 찾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놀이패 신명의 마당극 '인젠가 봄날에', 악단광철의 '복을 파는 유랑악단', 다양한 인형과 한국전통신앙을 신나는 인형극으로 선보일 극단 마루안의 문짜인형극 '꼬마장승 가출기' 등 국내 40여 작품을 선보인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 자매도시 중국 연운항시와 교류 협력 모색

목포시가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강소성 연운항시와 교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연운항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등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단장 왕홍신)은 목포시의회와 인민대표회의간의 교류 강화를 위해 지난 16일 목포를 방문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처음 외국 인사인 중국 대표단과의 환담에서 김중식 목포시장은 철도망 등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반도 평화가 정착 되면 목포와 연운항은 철도망으로 연결될 수 있어 국제 자매도시로서 더욱 활발히 교류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4·27 남북평화회담을 계기로 남북 철도·물류와 교통벨트의 시작점인 목포는 한반도중단철도(TKR)의 출발지로 기능하게 되고 TKR구축이 완성되면 연운항에서 더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와도 연결

된다는 것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8613km인 중국횡단철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되면 목포가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입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또 지난 17일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를 방문, 시설을 견학하고 수산식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 시장은 "목포가 김을 중심으로 수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며 "수산식품이 연운항시에도 소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9~10일 목포와 진도에서 열리는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에 대해 안내하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했다.

목포시는 지난 1992년 연운항시와 국제 자매도시를 체결하고 직원 상호 파견, 대표단 방문, 공연단 파견 등 교류를 펼치고 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목포 원도심 '墨의 향연'

전남 수목비엔날레 '수목수다방' 국내외 작가 26명 참여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 특별 기획프로그램인 '국제적 수목수다방'이 국내외 작가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목포시 만호동 수협 근대 창고에서 펼쳐지고 있다. 사진은 외국 작가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국내외 유명 예술가들이 목포에서 목의 향연을 펼친다.

이달 말 개막되는 '2018 전남 국제 수목비엔날레'의 특별 기획프로그램인 '국제적 수목수다방'이 지난 10일부터 만호동 건물 시장 내 수협 근대창고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행사에는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태국,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미국, 일본, 쿠르디스탄 등 11개국 15명과 국내 10명, 게스트 작가 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10일부터 한 달간 수협 창고를 거점으로 목포에 체류하면서 현장에서 작품을 제작해 비엔날레 기간(8월 30일부터 10월 31일)동안 전시한다.

근대 창고를 전시장으로 선택한 이승미 큐레이터는 "벽 자체가 그대로 그림인 데다가 천정이 높고 오래된 시간의 흔적을 지녀 예술적 가치가 높다"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전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 레지던시에 참여한 해외 작가들은 수목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없이 한지와 먹을 기본으로 자신들의 기존 예술세계와 접목시키는 힘든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참여 예술가 중 국내 장현주 작가와 해외파인 쿠르디스탄 출신의 바키야 카프란 작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장현주 작가의 작품 '풀의 그늘'은 목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무려 길이만 20m에 달하는 대작으로 먹이 써내려간 한편의 대서사시다. 전주 한지지원센터에서 특별 주문 제작했다.

스미고 번진 먹의 얼고 짙음, 깊고 얇음에 따라 풀잎이 바람에 늘고 일어서며 서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특유의 묵향이 우러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또 바키야 카프란은 슬픈 사연을 갖고 있다. 그의 모국인 '쿠르디스탄'이 1차 세계대전 이후 터키, 이라크, 시리아, 이란 등 4개 국으로 흡수되어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그는 한국의 산이 좋다고 말한다. 모국의 산은 대부분 바위산인데 한국의 산은 나무가 있어서라는 게 이유이다. 그래서 그는 이번 행사에 산을 그린다. 산이 그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이고 개념이다.

수목의 향연이 진행되는 수협 근대창고와 함께 인근 목포 YWCA 입구에 위치한 예인 갤러리에서는 '수목 수다방'이 운영된다. 이다방의 주인은 공중에서 참여한 안해경 작가. 그는 매일 아침 참여 작가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오후 2시-7시)까지 방문객들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관람객들이 갤러리를 방문하면 작가가 직접 만든 차를 마시면서 작가와 대화를 나누고 안 작가는 방문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수목 그림으로 담아 갤러리 벽면에 순차적으로 작품을 내건다. 이들 작품이 차곡차곡 모여 거대한 수목비엔날레 전시작품이 탄생된다.

또 공미선·안명호 작가는 팀을 이뤄 오는 23일부터 수목 수레를 이끌고 목포역과 시장, 바닷가 등 목포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대성석유 일음'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총괄하는 이승미 큐레이터는 "국제적 수목수다방은 아시아 문화 예술의 공동언어이자 지식 기반인 수목이 한국미술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로 세계화 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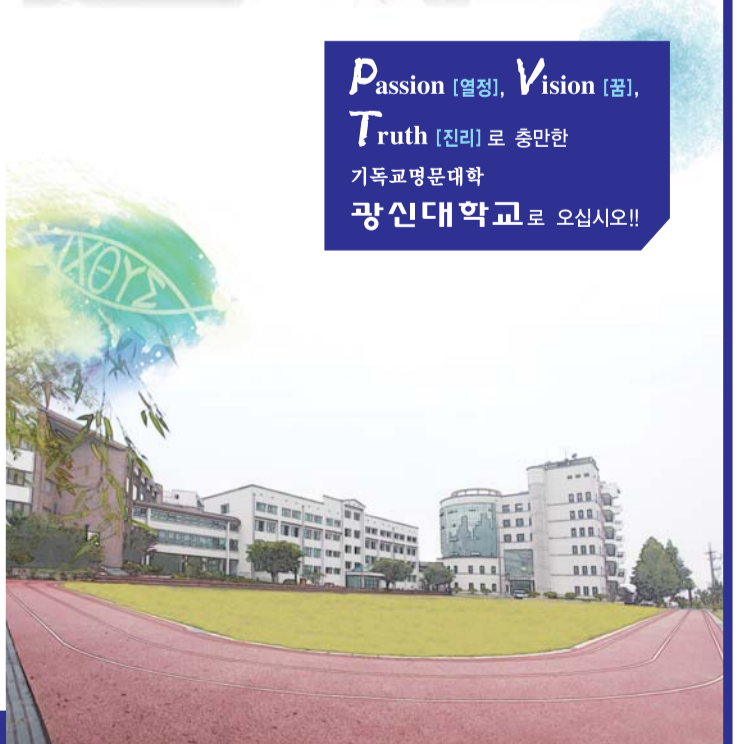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석사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5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